

아프리카 경제 전망

부록

2020

코로나  19
속에서

하이라이트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이 문서에 언급된 의견 및 개진된 논거는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이사회 또는 이들이 대표하는 국가의 공식 관점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자료 및 지도는 특정 영토의 상태 또는 주권 상태, 국경 및 경계선의 한계, 특정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명칭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ISBN 978-9973-9848-7-6 (인쇄본)

ISBN 978-9973-9848-8-3 (전자본)

© African Development Bank 2020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출처이자 저작권 소유자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이 문서를 개인적 용도로 복사, 다운로드, 인쇄할 수 있으며, 이 출간물의 발췌본을 본인의 문서, 프레젠테이션, 블로그, 웹사이트, 교육 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아프리카의 어두운 경제 전망

코로나19가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경우, 아프리카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1.7%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월 코로나19 이전의 수치에서 5.6% 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이후에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2020년 GDP는 더욱 위축되어 3.4% 축소할 것이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성장 예측치보다 7.3%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2020-2021년 GDP 누적 손실은 1,731억 달러에서 2,367억 달러로 관측

예상되는 성장 둔화로 인해, 아프리카의 2020년 GDP 손실은 1,455억 달러(기본 예측)에서 1,897억 달러(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2020년에 대한 코로나19 이전의 예상치인 GDP 2조 5,900억 달러와 대비된다. 부분적인 경제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 손실은 2021년으로 이월될 것이다.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측되던 2021년 잠재 GDP 2조 7,600억 달러에 대해, GDP 손실 예상 규모는 276억 달러(기본 예측)에서 최대 470억 달러(최악의 경우)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거나 국가 수익을 관광, 국제무역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 채무 부담이 높은 국가들, 불안정한 국제 금융 흐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다. 그러나 팬데믹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는 바이러스의 전염 양상,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공공 정책적 대응의 효율성, 사람들의 행동 변화 유지 등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팬데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급상승

팬데믹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미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2020년 1분기에 5%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품 및 에너지 공급의 차질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국가들, 특히 자원집약도가 낮은 경제구조의 국가들의 경우 도시봉쇄 조치 및 기타 제한 조치들로 인한 총수요의 급락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했다. 대체적으로, 식품 및 기본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근원물가지수는 팬데믹 이후 수요가 다시 증가할 때까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미 높은 재정 적자를 배가시킬 수 있는 재정 지출 확대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적 결과들이 아프리카의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 재정 정책적 대응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재정 확대는 지역 내 재정 적자를 더욱 크게 야기시킬 것이다. 2020년, 기본 시나리오에서 적자는 두 배 증가해 GDP의 8%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상황 악화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부문 지출, 실업 급여, 대상을 정한 임금 보조금 및 직접 송금, 세금 삭감 및 납부 연기로 인해 예산 지출이 표준 이상으로 증가한 결과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부채 부담의 증가

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가 국가 채무 위기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프리카 내 많은 국가들이 GDP 대비 채무가 높은 상태에서 현 위기 상황을 맞이했으며 이러한 높은 채무 비율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이전의 수치를 상회하는 10% 포인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 채무(유로채권 및 기타 민간 채권)의 비율 증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 부채의 높은 외화 비율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는 그리스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의 증가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송금 및 외국 직접 투자의 급감

전 세계 경제 성장 및 이민의 증가에 따라 송금이 외부조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7% 증가한 828억 달러, 2019년에는 862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것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중요 재원이 되어, 특히 카보베르데, 코모로, 감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세네갈의 경우 GDP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 특히 이민 노동자의 일자리 및 소득이 위협을 받는 고소득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송금 중단 사태에 매우 취약하다.

2018년에 10.9% 증가한 459억 달러, 2019년에 490억 달러(추정)로 증가한 외국 직접 투자 또

한 현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축소 또는 연기함에 따라 2020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이후 증가(2018년 1.2%)했던 정부개발원조는 현 위기 상황이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축소할 수 있다. 2017년부터 하락하다가 2019년 271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포트폴리오 흐름은 신흥 경제국의 자본 흐름이 갑자기 정체됨에 따라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성장 위축 및 투자자들 사이의 위험 회피 경향으로 인해 2020년에는 50% 이상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영향

점차 진정세를 보이는 아프리카 내(內) 팬데믹

아프리카 54개 국가들 내(內)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0년 6월 22일 기준 304,642명이며, 사망자는 8,087명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검사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고된 수치들은 적게 보고된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북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내 국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며, 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의 증례수는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검사의 지체 또는 완화 조치 간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아프리카

아프리카 내(內) 바이러스 확산은 감염자들을 격리 및 치료할 여건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가에 크게 달려 있는데, 이 지역의 높은 질병 취약성과 열악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심각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국가별 의료 시스템 역량에 대한 포괄적 평가 자료인 세계보건 보안 지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준비 상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54개 아프리카 국가들 중 단 21개국만이 전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팬데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임상적 관점에서 준비가 더 잘되어 있는

아프리카 내 바이러스 확산은 감염자들을 격리 및 치료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나머지 33개 국가는 전염병 대처 시설과 준비도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2,820만~4,92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

아프리카 내(內)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인구 수(국제 빈곤선 1.9달러 기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2020년 4억 2,5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 수가 더욱 증가하여 기본 시나리오에서 4억 5,340만 명,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4억 6,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GDP 성장률이 인구 성장률을 밀도는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임에 따라, 팬데믹으로 인한 절대 빈곤층 수는 2021년 3,400만~4,920만 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와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2020년 기본 시나리오에서 각각 850만 명 및 270만 명,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각각 1,150만 명 및 340만 명이라는 최대 규모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2,500만~3,000만 개의 일자리가 소실될 것으로 전망

아프리카 내 2019년 취업인구 수는 7억 7,340만 명이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2020년에 7억 9,2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GDP 축소 1.7%라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에 2,46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GDP 축소 3.4%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3천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빈곤 노동자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따라, 이러한 위기는 남아 있는 일자리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도시봉쇄 조치 및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비공식부문으로 이동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할 것이다.

정책 옵션

코로나19 팬데믹의 전 세계적인 규모와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부 및 개발협력부문은 함께 조율하고 대상을 정하며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팬데믹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진행될 위기에 대한 대응은 체계적이고 다각적이어야 하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희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적 대응, 자금 유동성 제약 및 파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적 대응, 팬데믹이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대응, 노동자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향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구조적 정책이 요구된다.

공중보건에 의한 대응

아프리카 내(內) 바이러스의 확산은 감염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코로나19의 증상,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그 확산을 억제하여 대중의 혼란과 잘못된 정보 전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민간부문, 특히 이동통신 사업체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자원 계획 및 검사 캠페인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다.

공중보건부문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건전한 의료 비상 계획을 수립. 단기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감염자들을 찾아내고, 검사와 격리를 실시하여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의료 시스템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의료적 대응에 투자.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의 의료 시스템을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의료 체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의료 시스

팬데믹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개발협력부문이 함께 조율하고 대상을 정하며 신속하게 대처

템을 시급히 강화하고 향후 발생할 질병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의료 인력의 확충. 아프리카의 교육 시스템은 공중 보건 교육을 우선시하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개발 우선 사항 중에서 의료 시스템의 입지를 강화. 의료 시스템에 더 많은 재정적 자원을 배분하는 일은 구조적인 투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내(內) 정부들의 개발 의제에서 의료부문이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륙 전체가 향후 의료 대란에 대한 대응력을 잃고 경제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

향후의 충격에 더욱
취약해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처

재정 정책적 대응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는 임시적 세금 구제, 현금 지급 및 재난보조금 제공 등을 통해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기업과 가계가 생존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실직자 또는 생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다:

- 현금 지급, 피해 기업을 위한 세금 신고 기간 연장, 피해 산업에 대한 임시 보조금 제공.
-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회 보호 시스템이 갖춰진 국가에서는 실업 보험, 사회보장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수혜 자격 및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
- 비정부기구가 활용하는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식품(배급 또는 바우처) 지원 등과 같은 구호 제도 운영.

통화 정책적 대응

은행들은 기업들이 기한 내에 부채를 상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출 비용이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금융 여건의 완화.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리를 낮추어 긴축된 금융 여건에 대응할 방

법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 영향을 받은 기업과 부문을 대상으로 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례적인 거시건전성 통화정책 운용. 중앙은행은 서비스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항공, 호텔 체인, 물류, 스포츠 등)과 같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일시적인 상환 기간 연장 또는 채무 구조 조정을 통해 자체적인 양적 완화책을 강구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및 비공식부문의 은행 계좌 미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이행하는 다른 기관이 운영할 수 있다.

노동시장 대응

코로나19가 아프리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취약층, 특히 비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거나 공식부문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청년 및 여성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취약층, 특히 청년 및 여성들을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의 취약성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밀하게 설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 공식부문 노동자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3분의 1이 여성 소유)에 대한 지불 급여세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상업 신용 한도를 확대할 체계를 마련한다.
-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에게는 옵션으로써 모바일 송금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현금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식품, 물, 위생용품 등 더 신속하게 배급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한다.
- 의료진 및 사회복지사에게 보너스와 같은 단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별 간의 임금 격차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자와 일자리 보호를 위한 역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추구. 각국 정부는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로 조건을 마련하고, 아프거나 격리되었거나 아이를 돌보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유지보증, 집단유급병가 및 육아휴직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비공식 근로자, 실업자, 비보험 근로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괄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확장해야 한다.

구조적 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고 복원력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향후 충격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마련되는 정책이 장기적인 경제 궤도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생산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가속화.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환경의 장애물 해결은 엔지니어링, 제조, 건설 등의 기술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공, 디지털 기술, ICT 기반 서비스, 상업 물류 등과 같은 부문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경제 공식화(Economy formalization)를 위한 걸림돌 대처. 사업자 등록 절차와 세금을 완화하면 행정요건과 고액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공식 등록을 기피하는 비공식 사업자들의 공식화를 촉진할 수 있다. 공식화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자본에 대한 접근과 운영을 확장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공식화의 이점을 강조할 수 있다.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최대한의 운용을 도모. 개혁의 실행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비공식 노동자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경제 재개 시기에 대한 균형 조정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활동 재개와 코로나19의 확대 방지 사이에서 그 득실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극심한 도시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팬데믹 피해자 수를 모두 낮추는 일은 일종의 딜레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 고위험에 속하는 기저 질환 환자들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특정해 보호하고, 경제활동 재개 초기 단계 동안 이동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더 대상을 좁힌 타겟팅 된 일련의 조치를 마련한다.

팬데믹 사태로부터의 회복은 불안정하고 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정부는 새로운 정보의 입수와 사건이 전개될 때 지속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세심하게 계획되고 배열된 적응 전략을 따라야 한다. 특히 팬데믹 대처에 있어서 이미 여러 단계를 거친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련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효과적인 현지 구현과 함께 일관성 있는 국가 체계에 따른 전략을 먼저 마련하고, 연관된 불확실성과 국민의 불안감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경기 회복과 함께 반등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승인을 얻기 위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일관성 있는 국가 체계에 따라 전략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2020년 아프리카 경제전망의 부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아프리카의 거시경제와 사회적 비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위기에 대처하고, 경제 침체를 직면하고, 경기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정책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팬데믹이 단기에 종식되어 도시봉쇄 및 기타 강력한 제한 조치가 7월까지 해제되는 경우, 아프리카의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7%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치들이 2020년 상반기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2020년 GDP는 3.4% 감소할 수 있다. 2020-2021년 GDP 누적 손실은 1,731억 달러에서 2,370억 달러 사이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GDP가 1.7% 위축되면서 2020년 2,46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GDP 성장이 3.4% 축소될 경우 3,0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팬데믹이 없는 상황에서의 아프리카 극빈층 수는 2020년 4억 2,5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GDP가 1.7% 감소하고 그 수가 2,800만 명 추가 증가할 수 있으며, 3.4% 축소될 경우 3,750만 명 추가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에는 GDP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을 밀들면서 이 수치는 각각 3400만 명, 4920만 명씩 증가할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들은 의료시스템이 취약하거나 국가 수익을 관광, 국제무역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 채무부담이 크고 변동성이 큰 국제금융흐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다. 팬데믹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는 바이러스의 전염 양상, 그것이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공공 정책대응의 효율성, 사람들의 행동 변화의 지속성에 달려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전 세계적 규모와 그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와 개발협력파트너는 팬데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율 대상을 정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진행될 위기에 대한 대응은 체계적이고 다각적이어야 한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희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적 대응, 자금 유동성 제약 및 파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 대응, 팬데믹이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대응, 노동자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향후의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이 요구된다.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venue Joseph Anoma
01 BP 1387 Abidjan 01
Côte d'Ivoire
www.afdb.org